

# 선박 면세유 부정수급 50대 2명 검거

## 속초해경, 프리패스 다른 선박에 설치하는 신종 수법 적발... 800만원 상당 부정 수급

선박들이 입출항시마다 출입항 신고소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선박출입항 위치장치(프리패스)를 다른 선박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불법 사용해온 어민 2명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본인 소유 어선이 출입항한 것처럼 속여 면세휘발유를 부정 수급받아 사용해온 죽왕 선적 0호(0.71톤) 선장 이모씨와 공범 가

진 선적 U호(16톤) 선장 박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 소유 어선에 부착된 선박출입항 위치장치(프리패스)를 박씨 소유의 U호에 설치해 놓고 입출항하는 것처럼 속여 총 41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4,100리터(시가 800만원상당)를 부정하게 수급받아 승용차와 이륜차 등에 사용한 혐의다.

선박출입항 위치장치 시스템은 선박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를 이용해 선박의 이동에 따른 위치정보를 3분마다 자동 송신하고, 송신되는 위치정보는 파출소 등의 시스템에 저장되는 장치다.

2006년 7월에 도입돼 속초 등 3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어선이 입출항시마다 출입항신고소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최광호 기자



지난 19일 열린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국가 헌신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 확산”

## 육군 22사단 군·경·소방관 자제·해외영주권 병사 격려행사

육군 제22 보병사단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사단 사령부에서 군인·경찰관·소방관 등을 아버지로 둔 병사 및 해외영주권 병사 격려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가에 헌신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확산하고,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조국 수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모범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와 오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군·경·소방관 자제 61명과 해외 영주권자 8명 등 총 69명의 병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제복을 입은 아버지 아래서 겪었던 희로애락을 함께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한편,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고국을 떠나 있음에도 조국으로 돌아와 군에 입대한 해외 영주권 보유 병사



육군 22사단이 마련한 군·경·소방관 자제 및 해외영주권 병사 격려행사에 참석한 군인 부자가 군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들은 각자의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가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재민 상병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많이 다녀 군인의 아들이 싫었을 때도 있었지만, 직접 군복을 입어 보니 아버지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며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남은 군 생활동안 더욱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했다.

한편 22사단은 이번 군·경·소방관 자제 및 해외영주권자 격려행사 뿐 아니라, 매주 소초 단위로 장병 격려오찬을 전개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 방범용 CCTV 설치 논의

## 2011년 상반기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2011년 상반기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가 지난 19일 오전 11시 고성경찰서 2층 열린마루에서 황종국 고성군수 등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및 이용완 고성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이 2011년 상반기 주요 치안 활동에 대해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 11개소 24대를 설치하는 방안

이용완 고성경찰서장은 이 자리에서 고성군 지역의 치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치안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2011년 1분기에 ‘전화친절도 도내 1위’, ‘인터넷 사기 단속실적 도내 1위’,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도내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광호 기자

# 소금 원산지 둔갑 판매 단속

## 일본 원전사고 여파 국산 가격 크게 올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국내산 천일염의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경찰이 소금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최근 유통시장에서 소금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감찰청 등 한시적으로 발생하던 외국산(중국산) 소금의 국산 둔갑 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달 31일까지 소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금의 원산지

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 소금의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소금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유통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해양긴급 신고전화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 이용완 고성경찰서장 전의경과 산상워크숍

이용완 고성경찰서장은 지난 16일 간성을 금수리 소재 고성산에서 전의경 등 12명과 함께 산상 워크숍을 열고, 사기진작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최광호 기자

